두곳으로 찢긴 '세계 김치연구소'

내년 완공 앞둔 광주 대신 경기 분당에 연구소 개소…광주시 강력 반발

광주 김치 세계화의 핵심 인프라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세계김치연구소'가 10일 경기도 분당 한국식품연구원 부설연구소로 문을 열기로 하자 광주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9일 "지난해 전국 공모를 통해 광주시가 세계김치연구소를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다른 지역에 '세계김치연구소'를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10일 열리는 '세계김치연구소 개소식'의 행사명칭을 '세계김치연구소 준비단 개소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올 상반기까지 준비단의 광주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애초 개소식에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박광태 광주시장도 일정을 취소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시 남구 임암동에 들어설 세계김치연구소 건물이 내년 말 완공될 때까지는 세계김치연구소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설연구소로 운영될 수는 있지만, 세계김치연구소의 개소 장소는 광주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분당에 세계김치연구소를 두려는 움직임이 있어 지난해 광주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며 "김치연구소 건물이 올해 착공해 내년에 완공되는 데 굳이 세계김치연구소 개소식을 다른 지역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기존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세계김치연구소의 조기 정착과 법령 제정 및 연구소 건축 등을 위한 행정 절차 편의 등을 감안, 일단 개소식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광주시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국책연구소인 세계김치연구소가 바로 연구에 착수해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광주의 김치연구소 건물이 완공될 경우 그대로 광주로 이전할 방침인 만큼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내년 말까지 광주 남구 임암동 일대 2만1294㎡ 부지에 국비 361억 원을 들여 건립되며, 오는 2015년까지 연구개발비 등으로 매년 100억 원이 투입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伊 제조업체

1천만弗 투자협약

광주시는 9일, 이탈리아의 냉동·냉장 쇼케이스 제조기업인 아르네코리아(주)와 1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아르네코리아(주)는 2004년 평동외국인투자구역에 입주한 상업용 냉장·냉동 시스템 쇼케이스 전문 제조업체다. 이탈리아 파도바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해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세계 13개국에 18개 생산판매법인을 갖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오바마 방문 앞둔 印尼 테러 진압훈련 인도네시아의 대테러부대 군인들이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9일 인도네시아 데폭에서 보안 훈련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광역경제권발전위

10개 선도사업 발굴 추진

호남권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광주와 전남·북 3개 시·도의 발전을 이끌 장기발전계획 사업을 발굴,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이를 위해 광역연계 사업으로 헬스케어 산업육성과 금형산업 육성, 친환경 인쇄회로 부품소재 육성, 천일염 식생활 콘텐츠 홍보마케팅 등 10개 사업을 발굴해 최근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최종 추진사업은 다음달 중 지식경제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올해 54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친환경농업, 영농비 20% 줄인다"

전남도 쌀·축산 등 5개분야 생산비 절감단 운영

친환경 농업을 적용하면 관행적인 영농에 비해 20%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9일 도내 농가의 영농 비용을 분석한 결과, 일반농법을 적용할때의 영농 비용이 ha당 140만~160만원이 들어가는 반면 자연농법을 통한 영농비용은 ha당 90만~1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연농법은 사람의 손을 최대한 줄이고 자연의 힘으로 재배하는 농법으로,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비롯, 유기질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키우는 게 특징이다. 현재 담양·곡성·영암·장성·무안 등의 농가가 11.5ha의 면적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중이다.

친환경적인 자연농법을 활용한 과수 재배도 일반 농법에 비해 생산비를 2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분야도 생산비의 37%를 차지하는 사료비를 32%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비육우의 경우 10마리를 사육할 때 들어가는 사료비만 연간 1천940만원 수준이지만 청보리 등을 사료로 활용하게되면 1천470만원이 들어 32% 절감 효과를 거둔다는 것.

전남도는 기존'고비용 저수확'이라는 친환경 농업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쌀·과수·축산·시설원예 등 5개 분야별로 생산비절감 기획단을 꾸리고 10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어 농가에 적극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 지방선거 핫코너

정용화 "금호사태 공개토론 갖자"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9일 "누가 더 금호 살리기를 위해 노력하는지 따져보자"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정 예비후보는 "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노력을 친 재벌·반노동 정책으로 몰아붙이고 노조의 동의서가 없어 자금 투입이 늦어지면 협력업체가 피해를 본다는 말이 어찌 정치적 발언이냐?"면서 "금호사태에 도움도 되지 않는 말 장난을 벌일 때가 아니라 공개 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난실, 정용화 후보에 '1:1 토론' 제안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예비후보는 9일 "한나라당 정용화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금호타이어 사태는 노사갈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정 후보에게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금호타이어 위기는 경영진의 무분별한 외형 불리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정 후보는 서울에서만 살아서 광주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공격했다.

이용섭 "서비스 R&D에 3천억 투자"

이용섭 국회의원은 9일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서비스 R&D에 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광주가 제조업 위주의 R&D에만 집중하지 말고 서비스 R&D 투자를 통해 재도약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고 프랑스·일본의 54%에 지나지 않는 초라한 성적"이라며 "서비스 R&D는 광주지역 중소기업 뿐 아니라 행정·보건·복지·교육·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도입이 가능한 창의적 연구개발 분야"라고 말했다.

정동채 "광주경제 회복 토론회 갖자"

정동채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9일 "광주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는 위기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이 만나서 침체한 광주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그 해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광주 경제회복 토론회를 제안했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경제를 살리려면 광산업, R&D(연구·개발) 특구를 비롯한 성장동력산업과 차세대 신 재생에너지사업,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광주시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역량을 결집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운태 "U대회 발대, 관권선거 우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민주당 경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일부 관변단체를 동원해 각 구청 별로 2015 U대회 범시민지원단 발대식이라는 대규모 군중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신 관권선거' 의혹이 짙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U대회가 무려 5년 여나 남았음에도 벌써 범시민지원단 발대식을 거창하게 치르는 것은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해 간접적인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철저한 감시와 함께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찬용 "시민배심원제 생색내기 그쳐"

정찬용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9일 "광주에서부터 개혁공천으로 반MB전선 확대에 불을 지피겠다는 의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생색내기에 그치고 말았다"며 민주당의 시민배심원 공천이 전국 8곳에 그친 점에 대해 비난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시민들을 줄 세우려는 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그나마 남은 사랑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뼈대를 바꾸고 허물을 벗어나는' 심정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시민의 뜻보다 당원의 뜻을 최우선으로 놓고 (공천자를) 결정해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말했다.

정해균 "무안군수 선거 출마"

정해균 전 여수부시장은 9일 무안읍 민주당 이윤석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안의 새로운 역사를 열고 자녀들에게 자랑스런 무안을 물려주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무안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부시장은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지방행정 전문 경영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구 지방의원 후보들 '국민경선제' 요구

김만곤 전 남구의원과 김병내 강운태 의원 보좌관 등 광주시 남구 지방의원 민주당 공천신청자 21명은 9일 성명을 내고 "광주 남구의 광역·기초 의원의 공천 경선방식을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도록 국민참여경선제를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남구의 경우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지역위원장이 지역대의원과 상무위원 대다수를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